

전남광주 ‘모두의 창업’ 694명 선정...창업 도전 본격화

일반·기술 481명·로컬 213명 선발

20일 출범·창업활동 200만원 지원

초기 멘토링·AI 솔루션 등 기회 제공

전남광주 지역에서 창업에 도전하는 예비 창업자 694명이 정부의 창업 지원 프로젝트 ‘모두의 창업’ 2차 사업 1라운드 진출자로 선정됐다. 15일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9만3천여명이 지원한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서 1라운드 진출자 1만명을 선발했다.

분야별로는 일반·기술 트랙 8천명, 로컬 트랙 2천명이며, 전남광주에서는 일반·기술 분야 481명과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운영하는 로컬 분야 213명으로 총 694명이 선정됐다.

이번 모집은 1차 사업의 선발 규모인 5천명보다 두 배 늘었지만, 경쟁률은 93대 1에 달했다. 전체 선정자 가운데 39세 이하 청년층은 65.3%,

비수도권 지역은 74.0%를 차지해 청년과 지역 중심의 창업 도전이 두드러졌다.

분야별 아이디어를 보면 일반·기술 트랙은 정보기술(IT)이 28%로 가장 많았고 라이프스타일 19%, 교육 10% 순이었다. 로컬 트랙은 생활 분야가 49%, 식음료(F&B)가 39%를 차지했다.

특히 전체 진출자의 40.4%는 1차에 이어 재도전에 나선 창업자였다.

이들은 앞선 심사 의견과 재도전 멘토링을 바탕으로 아이디어와 사업모델을 보완하며 창업

가능성을 높였다. 방치된 도심 공실을 활용해 반려식물을 구독 상품으로 판매하는 아이디어는 기술 구현 방안과 단계별 사업화 계획, 수익모델을 구체화해 재도전에 나선 사례로 소개됐다.

중기부는 오는 20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출범식을 열고 1라운드 지원을 시작한다. 선정자 1만명에게는 창업활동자금 200만원과 운영기관의 초기 멘토링, AI 솔루션 등을 제공해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8만3천여명에게도 재

도전 기회가 주어진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오프라인 재도전 멘토링은 오는 20일부터 12월14일까지 운영되며, 신청은 16일부터 ‘모두의 창업’ 플랫폼에서 가능하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1만명의 혁신인재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일상 속 문제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풀어내려는 국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날 수 있었다”며 “도전한 사람들 모두 실제 창업과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신협사회공헌재단, 취약계층 난방용품 지원

전국 689개 신협 참여...5억원 상당

신협사회공헌재단은 15일 “‘온세상 나눔캠페인’을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에 총 5억원 상당의 난방용품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온세상 나눔캠페인’은 신협의 대표적인 겨울철 사회공헌활동으로, 2015년 신협재단 창립과 함께 시작해 올해 12회를 맞았다. 매년 전국 신협이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용품 지원과 임직원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누적 지원액은 56억원에 달한다.

올해 캠페인에는 전국 689개 신협이 참여해 독거노인, 장애인, 저소득가정 등에 이불, 온열매트, 히터 등 겨울철 난방용품을 전달한다. 특히 각 신협은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해 대상과 품목을 직접 선정해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각 신협이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직접 발굴하거나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아동양육시설 등과 협력해 선정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 복지사각지대를 살피고 겨울철 난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겨울나기에 힘을 보탬 예정이다.

임직원이 참여하는 다양한 봉사활동도 전국 곳곳에서 이어진다. 김장김치 나눔과 반찬배달 등 지역별 수요에 맞춘 활동을 병행해 이웃과 소통하는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한다.

고영철 신협재단 이사장은 “‘온세상 나눔캠페인’은 전국 신협이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직접 살피고 필요한 도움을 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신협은 지역사회와 함께 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실질적인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선욱 기자

국민연금광주본부, ‘치매안심재산관리’ 첫 계약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가 치매 등으로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어르신을 위한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의 첫 이용 계약을 체결했다.

15일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최근 관할 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해당 서비스의 첫 계약이 이뤄졌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치매 등으로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워질 경우 의료비와 요양비, 생활비 등 필요한 자금을 본인의 의사와 계획에 따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서비스다.

이번 계약은 경도인지장애가 있지만 의사표현이 가능한 어르신이 향후 인지능력 저하에 따른 급전 피해와 재산관리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신청하면서 성사됐다. 인지능력이 유지되는 시기에 미리 재

산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지원을 통해 노후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광주지역본부는 어르신들의 자택을 방문해 재산 현황과 생활 여건 등을 살핀 뒤, 본인의 의사와 필요에 맞춘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했다.

신탁이 개시되면 공단은 사전에 마련한 계획에 따라 생활비 등을 배분한다. 용돈과 공과금 등 정기적으로 필요한 지출은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지급하며, 지원인은 월별 지출 내역을 제출해 사용 내용을 관리한다.

공단은 배분금 집행 결과를 확인하고 월별 지출 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반기별 1회 이상 대상자를 직접 방문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수시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안태호 기자



(사)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와 (사)광주전남여성벤처협회, 광주산학융합원이 지난 14일 홀리데이인광주호텔에서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전남광주의 중소벤처기업 성장전략’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 제공)

AI 모빌리티 시대 중소벤처 성장전략 모색

전남광주혁신벤처포럼 개최

실증 쿼터제 등 5대 과제 논의

전남광주 중소·벤처기업의 인공지능(AI)·미래 모빌리티 산업 전환과 성장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사)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와 (사)광주전남여성벤처협회, 광주산학융합원은 지난 14일 홀리데이인광주호텔에서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전남광주의 중소벤처기업 성장전략’을 주제로 ‘2026 전남광주혁신벤처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2026년 자율주행차 부품 광주 특화단지 3차 리더스포럼”과 함께 열렸으며, 전남 광주통합특례시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공동 주최했다. 행사에는 유관기관장과 경제단체 관계자 등 90여명이 참석해 지역 벤처기업의 성장 방향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주제 특강은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노희욱 혁신전략추진단장이 맡아 ‘전남광주 AIM O CITY, 중소기업의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진행했다.

노 단장은 전동화와 AI,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 흐름을 짚고, AI와 모빌리티를 결합한 미래 산업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노 단장은 기업들이 인프라를 실제 성장으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겪는 정보·자금·인력·시장 관련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5대 실행과제로 ▲미래차 전환 원스톱 창구 ▲데이터·GPU 개방 바꾸어 ▲실증 참여 쿼터제 ▲공공조달 연

계 ▲전환 투자 연계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실증 수요 매칭, 공동 투자설명회(IR), 지역 실증 및 거점 이전 등 벤처업계 간 협력 방안도 강조했다.

이어 전남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은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권과 영업비밀 보호 방안을 설명했다. 영업비밀의 법적 요건과 유출 사례를 소개하고, 영업비밀 목록 작성과 접근 권한 관리, 비밀 표시, 관련 계약서 작성, 퇴직자 관리 등 기업이 실천해야 할 보안 수칙을 안내했다.

김현수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장은 “전남광주통합특례시 출범과 함께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라는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며 “이번 포럼이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실질적인 성장 전략마련과 네트워크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안태호 기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남문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윤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산지사 944-0993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